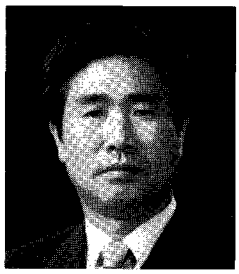
위생 수준 높여 부가가치 큰 상품 개발



박 태 원
(본회 홍성육계분회장)

발전에는 왕도가 없다. 끊임없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만이 진정한 발전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 왔으며 또 배우고 있다.

그렇다면 극복의 열쇠가 되는 것은 어떠한 노력인가? 그것은 아마 기술과 경영, 그리고 조직의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속에서 오늘 내일 하던 위기의 순간들은 너도나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 모두를 탈진하게 하고 있으며 더러는 이에 못견뎌 낙오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이고 발목을 잡던 쇠사슬이 하나 둘 늘어가며 더 옥죄어 오고 있는 것같다.

정부에서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려고 그 대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양계업계의 부실요소는 무엇인가?

양계업이 축산업을 리드한다는 자조적인 위로 속에서 1980년대 말의 크나 큰 불황의 시련을 지나가면서 규모가 시설화에 의해 대형화 되었으며 계열업체 역시 크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양계업의 외형적인 팽창 속에서 국내 경기 호조에 따른 소득수준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와 각종 브랜드 제품과 가공품이 개발되어졌으나 어느 누구도 또다른 불황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황은 90년대 이후 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생산량이 늘어남과 아울러 각자의 개별경영 속에서 협조적인 물량조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계속되는 생산량 조절 협의 속에서 결국 얻은 것은 불신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불신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생겨난 여러 유통의 거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으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거품가운데서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물론, 노력을 기울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좌절과 불신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생산자 의식을 고취시키자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불가능한 일이 서로 뭉쳐 협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이 어려운 것이 지금인 것 같다.

육계를 기르는 생산자는 관리보다는 경영속에서 항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아리를 들여와 아무리 성적을 좋게 길러도 시장이 악화되어 있으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육계업의 현실은 사양가로 하여금 사양관리에 집중을 하게 하기 보다는 시세에 신경을 쓰게 하여 결과적으로 육계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된다.

육계를 기르는 사람만이 생산자라기 보다는 육계업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닭을 키우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유통업자와 도계가공업자, 사료업자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사양가는 바뀌어도 닭은 키워져서 도계되어 지겠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온 사양기술과 노하우까지 그대로 닭과 함께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수십년 동안 육계업자에게 따라다니던 투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생산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

규모가 크건 적건 간에
경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감요소를 찾아보고
물량조절에 함께 동참하여
농장여건과 소비수준을 감안한
적정수수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양가, 상인, 도계업자, 사료회사, 최종 소비자 등이 모두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양가가 육계를 생산하는 것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였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며 업계의 양적인 성장으로 인한 생산조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육계값은 병아리 가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지속적인 적정가격에서의 병아리 공급은 육계업 안정의 밑거름이 분명하다. 육계값이 등락을 거듭하였던 데에는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닭고기 수요의 변화도 크지만 병아리 가격의 불안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

부화종계업자는 사양가와는 공존공생의 관계이며 동반자이다.

병아리가 과잉 생산되면 값이 떨어지게 되고 육계사양가는 싼값에 병아리를 들여와 이득을 높여 보려 하지만 나 하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값이 싼 병아리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값이 싼 병아리를 생산해내는 부화종계업자들 역시 괴로움은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닭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많은 액수의 돈을 축산관련 분야에 지원하였다. 그 결과 양계업은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규모가 커짐에 따른 물량조절방안과 품질향상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커져 버린 외형으로 인해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경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감요소를 찾아보고 물량조절에 함께 동참하여 농장여건과 소비수준을 감안한 적정수수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될 때에는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채산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보여진다.

기존의 경영비에서 임금이라든지 고정된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출은 줄이기가 어려울 뿐더러 설사 줄인다 하더라도 당장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경영의 손실과 늘어나는 빚이 물량을 유지하거나 늘리므로 해서 갚아나가기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결코 밝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육수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효율적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량 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소비량과 생산량에 대한 근거있는 자료를 모두 함께 도출해 내어 이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어려울 때가 오히려 단결과 화합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양계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또다른 지원금이 아닌 제도 개혁과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으로도 정부의 지원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과정의 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업계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공품 역시 지금까지는 후라이드 치킨의 가공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개발된 가공품들은 큰 빛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닭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대신하는 식품으로서의 소비도 있겠지만 이제는 닭고기 특유의 고기 맛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형태를 주의깊게 세밀히 분석하여 변화되는 식생활 문화를 이끌어 가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금 불어닥친 육계업의 위기는 어찌보면 그 골이 깊다고도 할 수 있으며 그 골을 깊게 만든 책임에서 육계를 길러내는 사양가는 물론 유통업자, 도계업자, 계열업체, 정부, 학계 등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책임자라는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여 지난날을 거울삼아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육계업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계